

서평

지리학 연구방법론

클리퍼드 외, 이견학 외 옮김, 2022, 푸른길, 서울, 832쪽

홍동표* · 오준혁** · 심진구*** · 윤보경****

1. 지리학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설렘(홍동표)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학사-석사-박사의 차이’라는 내용의 유머를 접해본 적이 있는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학사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석사는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깨달은 상태’라고 한다. 결국 대학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 날까지 ‘모름’이라는 영역은 정복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에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유머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학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마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연구자의 ‘모름’을 죄로 여길 수는 없으며, 때로는 연구자에게 모름이란 끊임없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당신이 이 책을 구매하기 직전의 학생 또는 연구자라면, ‘모름’이라는 상태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 지리

학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이 책의 첫장을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서평은 두개의 단계로 구성하고 조직하였다. 첫 단계는 이 책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차와 단원구성을 통해 책의 조직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각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이 책을 어떠한 맥락에서 독서해야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책의 실질적 독자로 이해할 수 있는 지리학 입문자 및 동료연구자에 이 책을 독서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 독서를 마치고 느꼈던 가장 걱정적인 감정인 ‘무지의 부분적 해소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소개하고, 서두에서 제시했던 유머 이야기와 대조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모름’의 영역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연구자가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Assista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eohongdongpyo@chungbuk.ac.kr

** 평창 대화고등학교 교사(Geography Teacher, Daehwa High School, Pyeongchang, Gangwon), geohjih@korea.kr

*** 진천 이월중학교 교사(Geography Teacher, Iwol Middle School, Jincheon, Chungbuk), jg9497@naver.com

**** 충북대학교 대학원 역사지리교육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bsqhrud0070@naver.com

인 ‘연구 프로젝트 계획: 연구의 시작’에서 지리학 연구는 주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활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총 6장에 걸쳐 본격적인 연구방법론을 살펴보는데 앞서 독자가 고려해야 하는 연구과정에서의 개괄적인 준비사항과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장에서는 지리학 고유의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방법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고 이루어져 왔는지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이며 분석적일 수 있는 방법론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2장에서 6장까지는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파트인 ‘인문지리학의 자료 수집과 조사’는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인문지리학 연구를 위한 실제적 조사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7장에서 15장은 정성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조사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장에서 19장까지는 정량적 접근 방법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최신의 방법론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정성적 접근 방법과 정량적 접근 방법의 구분과 두 접근법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또한 정량적 접근 방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정성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소셜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맥락적 이해’를 제시한다. 결국 인문지리학의 연구에 있어 활용되는 정량적 방법과 자료들은 사회적,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조치이자 실증적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서술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주제를 정성적으로만 또는 정량적으로만 분석하는 초보 연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파트인 ‘자연지리학 및 환경지리학의 자료

수집과 조사’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장에서 25장까지는 전통적인 자연지리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26장부터 29장까지는 최근의 기술이 접목된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조직의 방법은 앞선 파트인 인문지리학 파트의 구성과 같은 유형으로 연구방법론 간의 맥락적 이해를 돕는 구성으로 보인다. 한편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시각적으로 연구방법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며, 때로는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직은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보다 쉬운 이해와 빠른 연구 실행을 도와줄 수 있다.

네 번째 파트인 ‘지리적 분석: 지리 자료의 재현, 시각화, 해석’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파트는 이 책의 마지막 파트로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에서 조사 가능한 자료와 해석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지리학이 사회과학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구과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던 지구관측과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탐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리학 영역의 무한한 확장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문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책의 내용 조직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각각의 학문적 주제와 논의들은 서로 관계적으로 얽혀 있음을 주장하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조직은 책의 구성 요소를 넘어 앞으로 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밝혔듯이, 이 책을 읽는 방법은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며 읽는 것에 더하여, 각 파트를 순차적으로 독서하며 저자가 의도한 연구방법론의 서술적 맥락을 함께 공감해 나아가는 것도 흥미로운 독서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도로서 학부생 시절에는 개론서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개념을 주로 학습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졸업하게 된다. 학부과정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방대한 양이 축적된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핵심개념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더욱 심오한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핵심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고, 언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은 결국 학문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탐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막 석사과정에 돌입한 초보 연구자로서 느꼈던 ‘모름’의 대한 답답함은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아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로부터 온 것임을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유레카 효과를 이 책을 통해 경험한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어두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동료 연구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일단 책을 펴보자.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자하는 주요 방법론이 서술된 챕터를 빠르게 음미해 보자. 그러면, 머리 속에 연결되지 않던 수많은 앎과 모름이 어느 순간 더욱 선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잊었을, 내가 처음 지리학을 사랑하게 된 그 순간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2. 지리학 탐구의 첫걸음(오준혁)

매년 3월 초, 지리 교사인 나는 지리학을 소개하면서 ‘종합적’이고, ‘범위가 무궁무진’하며, ‘우리 생활과 떼어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며 설명하곤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과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지리학의 특성

은 학생들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리학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또 내가 지리학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명확한 풀이 과정과 답이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지리학은 당연히 이를 탐구하는 방법도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지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는 국내 도서는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고자 하는 정신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의 방법이 연구에 있어 효과적이었다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 속에서 비판·성찰의 과정을 통해 연구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며, 더 나아가 나만의 연구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번역서인 ‘지리학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자연지리학부터 인문지리학 연구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GIS, 미디어, 증강현실 등 최근 확장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지리학 연구 등 최신의 연구 방법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와 같이 지리학 탐구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 ‘지리학 연구방법론’은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도약판과 같을 것이다.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 입문자들이 갖춰야 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소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가진 지리학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2부(인문지리학)와 3부(자연지리학)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수집된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재현하는 방법을 4부(지리적 분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학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1부(연구 프로젝트 계획)가 아닐까 싶다. 특히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는 방법(4장)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연구 윤

리(3장)에 관한 내용은 연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일 것이다. 책의 저자는 지리학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윤리적 행동은 우리가 하는 연구에 포함된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공동체, 그리고 환경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3.2장:54)고 하면서 ‘특정 행동이 갖는 의미와 도덕적 위치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이해될 수도 있으며(Smith, 1998), 다른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3.2장:62)고 말한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의 현상들을 탐구하기 위해 ‘답사’가 필수적인 지리학자에게 있어 연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할 것이다. 실제로 나는 학부생 때 ‘서울특별시의 다문화 공간과 공간적 차이’를 주제로 대림동과 서래마을을 답사하면서 경관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 사진 촬영했던 적이 있다. 대림동의 중국적 문화의 모습과 낙후된 주거 경관을 기록하고자 거리를 걸으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조선족 주민들이 불편한 기색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오로지 ‘중국 문화와 낙후된 주거 경관’에만 몰두했었고, 초상권 문제를 간과했다. 더불어 주거비 문제로 한국인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조선족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을 마치 신비한 것처럼 여기며 행동한 것은 무례한 것이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인문지리 답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지리에 초점을 맞춘 답사에서 환경에 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자연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나는 답사를 하면서 환경 윤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성찰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의 유형과 절차를 익힘으로써 앞으로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나는 문화경제지리학과 지리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정성적 연구 방법에서는 설문조사, 인터뷰,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었

으며, 이 또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 특히 정성적 연구가 정량적 연구만큼의 신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7장~19장에 걸쳐 다양한 정성적 연구 유형과 절차를 소개한다. 특히 외국의 실제 연구 사례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방법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아가 연구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9장의 반구조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내가 ‘영주대장간의 오리지네이션(origination)’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주대장간의 호미는 해외 유명 쇼핑사이트인 아마존에서 ‘한국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리지네이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주대장간의 설립자이자 지금까지 각종 농기구를 제작하고 있는 장인에 대한 인터뷰가 중요하다. 장인의 철학과 전략이 영주대장간 오리지네이션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인터뷰의 질문 구성부터 대화의 녹음 및 녹취 작성 과정까지 설명하는데, 특히 ‘대화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질문을 준비하라’든지, ‘참여자 답변하기 편하다고 느낄 만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보다 어렵고 민감하고 혹은 숙고할 질문은 후반부에 남겨두라’(9.3:186)와 같은 기본적인 면에서도 인터뷰시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뷰 시 단순하게 녹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직후 대화의 일반적 어조, 제기된 핵심 주제, 대화 중에 감동하거나 놀랐던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9.6장:190)고 말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실시하는 연구자가 느끼는 감정, 생각 또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장에서는 정동과 감정의 탐구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오리지네이션은 브랜드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리적 결합을 창출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터뷰에서 감정, 정동, 재현 등을 해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8장의 설문조사와 13장의 참여행동 연구의 내용은 지리 교사로서 수업 성찰 및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지역애를 함양하고,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수업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참여행동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13장:247)고 말하면서, 모든 과정이 참여자들의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 속에서 참여자의 창의·비판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13장:252)을 소개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PBL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내가 가르치는 평창군 대화면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위기, 다양한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수업 시간을 통해 밝혀왔다. 참여행동 연구 방법을 따라 1년 동안 지리 동아리를 운영하며 ‘대화면 재활성화’를 주제로 PBL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8장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는 것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 또한 지리학 탐구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 또한 지리학 탐구자이자 지리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14장의 텍스트 분석, 15장의 시각 이미지 해석, 12장 정동과 감정의 탐구 부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포스트식민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타자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보고도 싶다. 이처럼 ‘지리학 연구방법론’은 지리학 연구 입문자에게 지리학의 연구 방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리학 탐구 의지를 자극하는 책이기도 하다. 다만 이 책이 번역서이다 보니 외국 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공간에서의 연구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통해 접하게 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탐구하면서, 연구 대상 공간에 적절한 방법인지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만의 연구 방법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양과 질의 딜레마(심진구)

양과 질 중 무엇이 우선일까? 양보다는 질일까? 질보다는 양일까? 우리는 살면서 양과 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쉽게 접한다. 간단하게는 질이 좋은 식당과 양이 많은 식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부터, 복잡하게는 평가 방법 또는 연구 방법을 정할 때까지. 교사라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대학원생이라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중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교사 생활을 하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되는 고민이고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던 책이 바로 「지리학 연구방법론」이다. 이 책은 자연환경에서부터 인간 활동에 이르는 지리학의 광범위한 연구 영역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양적·질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물론 전통적인 현장 조사에서부터 GIS, 위성영상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최신 방법론까지 소개하고자 했다(5). 교사이자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이 책을 활용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이번 서평을 통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깨달은 점은 연구 방법의 양과 질은 둘 중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학적으로 양적 평가는 높은 신뢰도에 비해 낮은 타당도, 질적 평가는 높은 타당도에 비해 낮은 신뢰도로 특징 지어진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양적 연구가 신뢰도가 높고, 질적 연구가 타당도가 높은지에 대하여 반문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 및 해석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양적 연구라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질적 연구라도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지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연구를 한다고 해도 설문 문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활용하여 정성적인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인터뷰 방식 및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목적에 맞는 연구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적 연구라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양적 연구라도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연구에 있어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은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깨달은 점은 연구 방법의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학위 연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이 책을 접했고, 「지리학 연구방법론」이라는 제목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연구 방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구체적인 절차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전략과 조언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책을 활용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 모든 연구 방법에는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위 연구를 위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세부적인 연구 방법을 결정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논리적인 연구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됨과 동시에 ‘일부 학자들은 코딩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그들조차도 코딩이 단계별로 어떤 지침을 따라 완료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과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759)’라는 등의 내용은 연구 방법마다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처럼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은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로 연구 방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첫째로 양적·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깨달음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양적 평가라고 무조건 신뢰도가 높고, 질적 평가라고 무조건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연구할 때도 연구자의 전문성에 의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정되듯이, 평가할 때도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정될 것이다. 즉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양과 질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도 교육자도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로 연구 절차에 대한 깨달음은 수업 절차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연구 절차와 실제 연구의 관계를 교육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수업 모형과 실제 수업 간의 관계가 떠오른다.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된 연구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연구 주제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업 모형에는 정해진 절차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교실 상황마다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즉 선행 연구를 따라 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위하여 선행 연구의 절차를 활용하듯이, 수업 모형을 따라 하기 위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위하여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깨달음은 책에 대한 두 가지의 실망에서부터 시작됐다. 책의 두께와 무게에 대한 실망은 양적·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구체적인 연구 절차 안내의 부재에 대한 실망은 연구 절차의 유연성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책의 두께와 무게에 당황했다. 질 좋은 내용들을 모두 얻기 위하여 많은 양을 감수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껍고 무거운 책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책에 대한 부담은 배송된 책의 포장을 뜯기 전부터 느낄 수 있었다. 책의 두께와 무게가 불편할 때마다 ‘책이 1권, 2권으로 나뉘어 출판됐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양적·질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며 지리학의 융합과 종합이라는 강점을 한 권에 담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더 나아가 융합과 종합이라는 지리학의 강점이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분석, 시각 이미지 해석 등의 방법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활용한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직접적인 수업 내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 및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리학의 융합과 종합이라는 강점은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수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방법론에 대한 단원 또는 교과가 개발되는 것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책의 내용이 많고 수준이 높은 책들이 ‘10대를 위한’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는 사례를 보곤 했다. 「지리학 연구방법론」 역시 ‘10대를 위한 지리학 연구방법론’으로 출판되어

지리학의 강점이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접하며 갖게 되는 자신들만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인문지리학에서의 연구방법 (윤보경)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과거 르네상스 이전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동양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이 쓴 글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직접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점점 학문으로서 지리학은 그 영역을 넓혀 가는 데에 한계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더 이상 콜롬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처럼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엄격한 구분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지리학이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나 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리학은 타 학문과 융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학문인 것이다. 지리학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모든 행태를 망라하여 학문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인문지리학은 사람들 삶 속의 지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경제지리, 도시지리, 사회지리, 정치지리, 문화지리, 역사지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성격의 학문으로 발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은 융합적,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 가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보편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이 지리학의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 및 아카이브 연구, 설문조사, 참여 및 비참여 관찰, 텍스트 분석 등이 있다. 이런

방법론들은 지리학에서만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지리학문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비효과적인 방법론은 아니다. 인문지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들 방법론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인문지리학 연구방법론은 주로 정성적인 방법을 위주로,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물론 지리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지도화, 야외 관찰과 측정, 원격 탐사나 GIS 등의 기법을 다루기도하나 본 서평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2부. 인문지리학의 자료 수집과 조사'이다. 인문지리학의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이 장은 대학원에 처음 입학하여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초보 지리학 입문자에게 입문서로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지리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이 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체계적 서술이다. 8장부터 11장까지, 즉 설문 조사, 인터뷰, 응답자 다이어리, 참여 및 비참여 관찰의 경우가 특히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리학 연구방법론을 읽는 많은 독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리학 연구를 처음 진행해보는 학부생이나 석사가 연구방법 입문으로서 이 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주제 선택 방법, 연구에 적절한 연구 방법 선정, 연구 방법의 절차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8장 설문 조사에서 체계적인 서술이 장점으로 다가온다. 개방형의 질문과 폐쇄형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의 전략으로 대면 인터뷰 이외의 온라인 설문도 함께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세한 절차를 논한다. 이러한 단계적, 선형적 절차를 제시하여 연구자에게 원인, 실태 파악을 유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절차적 지식으로서 연구방법론 책의 기능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서술은 유연한 연구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설문 조사의 절차나 질문의 구성을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정성적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체계적인 서술로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완벽히 부합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될 길어진 초보 연구자들에게는 친절한 서술이란 틀에 맞추다가 자칫,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를 간과할 수도 있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습득하되, 유연하게 자신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연구자의 몫인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방법론의 암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책의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겪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지식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형식지 밖의 지식들, 즉 암묵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준다. 특히 7장의 역사 및 아카이브 연구, 9장의 반구조화 인터뷰와 초점 집단, 11장의 참여 및 비참여 관찰이 그러하다. 9장의 반구조화 인터뷰와 초점 집단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단 선정 기준, 질문의 구성, 녹취 방법 등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형식지로서 전달되기 어려운 암묵지를 글로 편히 풀어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초점 집단을 사례로 하거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한 논문을 사례로 들어 인터뷰에 좋은 장소, 녹취 중 유용한 팁들을 소개하고 있다. 11장의 참여 및 비참여 관찰에서는 수기 노트를 작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기법이나 사례를 들기도 한다. 가령 셀카 찍기나 현상에 팔호치기 같은 방법들을 서술하여 각자의 연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 및 비참여 관찰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사실상 암묵지를 글로서 전달하는 데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저자는 연구방법론에서의 암묵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로 글을 읽는 독자에게 연구방법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는 부정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각 연구방법론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자료 수집 단계 및 조사 단계에서 13장의 참여행동 연구나 10장의 응답자 다이어리 등은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연구 성과

가 좌우되기도 하며,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참여 행동 연구나 응답자 다이어리는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특히 비선형적이거나 협력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들은 연구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연구자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자나 다이어리 응답자의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계점들을 책에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연구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요컨대 인문지리학의 연구 방법론들은 연구 주제에 따라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해결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연구 방법론의 단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게 될 한계점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자가 갖춰야 할 자기 성찰적인 자세인 것이다. 연구방법론의 한계점의 서술은 연구자의 성찰적인 자세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번째로, 비재현 지리학과 관련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리학은 문화적 전환 이후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정치지리학, 의료지리학 등 모든 하위 분야의 학문에서 문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여 12장의 정동과 감정의 탐구, 14장의 텍스트 분석, 15장의 시각 이미지 해석을 통해 비재현 지리학으로서의 연구방법론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정동(affective)이나 텍스트 분석, 경관에 대한 시각 이미지 분석은, 비판적 영상 분석론까지 최근 지리학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을 다룬다. 여러 논문을 인용하여 비재현의 지리학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방법론과 담론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날 지리학의 관심사 또한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36장의 정성적 데이터의 구성, 코딩, 분석에서는 내러티브 분석과 담론 분석까지 그 예를 들어 가면서 상세히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의 기술 방법’이나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라’라는 말은 어느 타 학문

의 방법론에서도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일 것이다. 비재현 지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런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 연구에 효용성을 높여주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인문지리학 연구방법론 서술에 대한 장단점을 논해 보았다. 정리해보자면 이 책의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론이 갖는 의의는 인문지리학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체계적, 단계적, 선형적인 기술은 독자로 하여금 연구방법을 실제로 사용할 때 비선형성에서 오는 방향감 상실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연구 방법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 암묵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연구 방법론의 장단점을 서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 방법이란 절차적 지식 습득에 스킴핑을 제공한다. 게다가 최근의 비재현 지리학 연구 방법론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하여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론의 트렌드를 따라잡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논문의 사례가 외국의, 특히 영미권의 사례에 치중되어 있다. 영미권 지리학 연구에 기반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논문이나 심화자료에서 국내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암묵지를 전달하고자 저자가 독자에게 주는 다양한 팁들은 굳이 글로서 전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가령 글을 천천히 읽어야 한다든가—있는데, 이렇게 소개한 암묵지들이 연구방법론에 꼭 필요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연구방법론의 체계적인 서술은 유연한 연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인문지리학 연구방법론의 비판점이 있음에도,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반성적 성찰의 기회란 각각의 연구방법론이 갖는 한계점을 기술하고, 연구자들에게 각 연구방법들이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해당 방법론이 자신의 연구에 어떻게 쓰일지, 그 효용성, 한계,

보완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찰의 기회는 효과적인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본문의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론은 인문지리학의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연구방법론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여, 유용한 연구를 도출하는 데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보완책까지 마련한다면 이 책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교신: 홍동표,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E1-2-425)

Correspondence: Dongpyo Hong, 425 E1-2,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최초투고일 2022년 05월 31일

수 정 일 2022년 06월 15일

최종접수일 2022년 06월 29일